

# 해양관광 인적자원의 수요와 전망

양 위 주\* · 설 훈 구\*\*

## 《目 次》

- |                  |                   |
|------------------|-------------------|
| I. 서론            | IV. 해양관광 인적자원의 전망 |
| II.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관리 | V. 결론 및 제언        |
| III. 해양관광의 동향    |                   |

## I. 서론

21세기는 토지, 자본, 노동이 경제발전의 핵심요소이던 과거 산업사회와는 달리 지식과 정보기술이 국가경제 발전이나 기업경영의 성공을 위한 핵심요소이자 가치창출의 원천이 되는 지식·정보화사회로 본격화됨에 따라 산업 및 경제 부문과 교육을 포함한 사회의 제 영역이 지식과 정보를 기반으로 다변화되고 전문화되는 지식기반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는 사람과 교육이 중심이 되어 지식과 정보·기술 등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남에 따라 직종의 다각적인 분화, 직업의 생성·소멸주기가 짧아지는 사회로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새로운 직업분야의 고용창출이 확대되며, 산업현장의 생산체제가 첨단·정보화된 시설·설비를 바탕으로 지식집약적인 다품종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관광경영학과 교수, 해양관광연구소장. wjyhang@pknu.ac.kr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hsul@pknu.ac.kr

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되고, 생산과 유통이 연계됨에 따라 각종 서비스산업분야가 확대되어 산업구조 조정과 노동시장의 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환경변화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직업기초소양과 지식과 정보의 창출, 가공, 활용 능력과 도덕적 성숙, 건강하고 긍정적 인성 등 인간의 가치 있는 능력과 품성을 지닌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발달의 측면에서 개인의 잠재력 극대화와 성취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인적자원개발은 그러한 개인의 교육적 성취를 기반으로 하고, 그것이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동시에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은 동시성, 복합성, 연계성을 지녀야 하며, 아울러 인적자원의 개발, 관리·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역할 부서의 연계체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인적자원 개발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단위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 재교육, 문화, 예술 등 레저활동, 그리고 이를 위한 인프라 및 제도의 구축 등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가인적자원에 대한 정책개발과 연구는 활발한 반면에 지역단위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관심과 논의는 부족하여 국가인적자원 개발시스템을 구조화하는 초기단계부터 지역단위 인적자원 개발은 함께 고려되고 있는데,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은 지역별 인력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지역간 노동인력의 이동을 가속화시켜 지역경제를 침체시키게 되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산업 육성과 경제발전을 제고시키기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이 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화의 논의가 국가정책에서 핵심적 화두로 등장하면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정책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의 구축이다. 지역의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주체적이고 혁신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혁신체제는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지역혁신체제가 강건하게 구축되기 위해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이라는 과제 실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역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핵심적 주체로서 지방대학이 주목받고 있다. 즉 지역의 인재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지역혁신체제의 안정적·효율적 구축의 출발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해양관광의 인적자원도 지역혁신체제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 이외의 부산소재 대학의 역량이 집중되어야 할 것도 해양분야임에 틀림없다. 부산 소재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수진과 프로그램의 확보, 첨단 기자재의 구비, 우수한 인재들이 부산소재 대학에 입학하고 이들을 더욱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틀의 마련 등이 요구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목적 소개한 1장에 이어서 2장에서는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논의를 할 것이며, 3장에서는 해양관광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여, 4장에서는 해양관광인적자원의 수요와 전망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5장에서는 본문의 분석내용을 기초로 결론을 제시할 것이다.

## II. 인적자원과 인적자원관리

### 1. 인적자원

인적자원은 궁극적으로 인적자원관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기업경영의 하위시스템으로 인적자원관리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을 지닌다. 따라서 시스템으로서의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전략계획, 혁신 인큐베이터 프로세스, 인적자원관리 등 세부요소를 구체적으로 접근해야한다. 여기에서는 인적자원관리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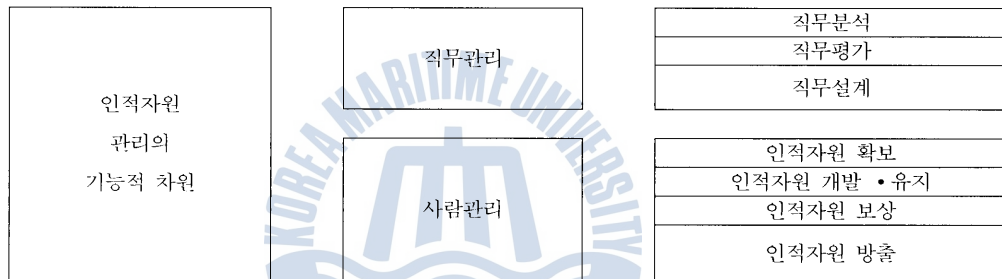
인적자원관리의 목적은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한다. 즉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직무의 요구에 맞추어 최소의 노동을 투입하고 노동력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고자 한다. 후자의 경우, 사회 심리적 협동 시스템으로서의 기업의 본질에 그 근거를 둔다. 따라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다른 구성원과의 바람직한 관계의 유지 발전을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경제적 목적이 노동생산성의 증대 등 비교적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목표를 지니므로 이를 달성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반면, 인간의 욕구구조를 파악하는 데 따른 어려움과 개인간의 차이 등으로 사회적 목적의 달성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 2. 인적자원관리

기업경영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인적자원관리에 대한 연구는 4가지 차원에서 구분된다 (이수광 외1, 2003): 기능적, 관리적, 제도적, 환경적 차원.

### 1) 기능적 차원

인적자원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구체적인 인적자원관리활동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직무관리와 사람관리로 구분된다. 직무관리는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설계로 구분되며, 사람관리는 인적자원 확보, 인적자원개발·유지, 인적자원 보상, 인적자원 방출의 4가지로 구분된다.



- 직무분석 : 직무의 내용 및 직무수행자의 행동·특성 등 자격요건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과정으로 직무평가 및 직무설계의 기초자료
- 직무평가 : 직무분석의 결과 밝혀진 직무의 구체적 내용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직무수행자의 자격요건을 토대로 직무의 가치 즉, 직무성과를 밝히는 것
- 직무설계 : 목적지향적이면서 동기부여적 관점에서의 직무내용과 수행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과정
- 인적자원 확보 : 필요한 인적자원의 획득활동
- 인적자원 개발·유지 : 확보된 인적자원의 능력과 성과창출의지 및 태도를 고수준으로 개발 및 유지
- 인적자원 보상 : 목적달성 정도에 공헌한 정도를 평가하여 경제적·비경제적 보상제공
- 인적자원 방출 : 이직 및 알선 등의 관리활동

## 2) 과정적 차원

기업의 관리과정과 마찬가지로 인적자원관리의 과정적 차원은 크게 계획과 실행 및 통제의 과정을 거쳐 수행된다. 즉,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의 과정을 출발점으로, 부족한 인적자원을 모집·선발하는 실행의 과정을 거쳐, 실행의 결과를 평가하는 통제 과정으로 이어진다.

## 3) 제도적 차원

인적자원관리활동은 상위 시스템인 기업의 형태, 즉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호텔기업의 바람직한 인적자원관리와 관광기념품기업에서의 바람직한 인적자원관리는 다를 것이다.

## 4) 환경적 차원

기업의 경영활동처럼 인적자원관리도 개방시스템으로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 가. 인구통계적 환경 및 노동시장

기업이 속한 사회 혹은 국가의 인구통계적 환경은 인적자원관리와 분리할 수 없는 관련성을 지닌다. 또한 인구통계적 환경을 토대로 성립하는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인적자원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오늘날 인구통계적 변화 혹은 노동시장의 변화로는 서비스부문으로의 노동력 이동, 노동력의 고령화,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인력의 사회진출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노동력의 서비스부문으로의 이동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의 세계적인 서비스경제화 현상은 인적자원 보상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서비스경제화로 서비스산업에서의 노동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인적자원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순차적으로 인적자원개발·유지와 인적자원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인적자원관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인구의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속도가 매우 빠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구의 고령화현상은 사회보장제도 등 다른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물론 인적자원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정년제의 폐지로 고령자 취업확대와 정년제 폐지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는 부상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 나. 사회문화적 환경

인적자원의 태도·가치관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적자원관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즉, 종업원의 일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놓아 직장생활의 질에 대한 기대를 상승시켰다. 인적자원관리에서 노동만큼 휴식이나 재충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면, 경영참여를 통한 종업원의 욕구충족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 다. 기술적 환경

정보기술(IT)의 발달과 과학의 발전 등은 기술인력의 중요성과 이들의 효율적 관리에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기술의 변화로 새로운 직무가 발생하기도 하고, 기존의 직무가 사라지기도 하는 등 직무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라. 법률적 환경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의 법률을 제정하여 기업에 강제하는 것.

#### 마. 그 외 환경요인

<표 1 인적자원관리의 외부환경 요인>

연구자	외부 요인
RL. French	경제적 동향,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가격, 경쟁의 심화, 정부의 법률, 생산성에 대한 관심, 경영 및 기술혁신
D.J. Cherrington	노동시장 : 산아율과 고용율 및 교육 정도 경제적 조건 : 생산 및 경쟁 법률 : 노동법 및 복지법
G.T. Milkovich 등	사회적·인구통계학적 변화, 노동시장조건, 제품·서비스 조건,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적 조건, 국제적 경쟁, 기술변화, 법률, 노조 영향력

(출처: 재판집. 이한김(1994). 경영학의 에센스. 형설출판사, p. 358)

<표 2 인적자원관리의 내부환경 요인>

연구자	내부요인
R.L. French	경영철학, 조직문화, 개인과 집단 및 집단 간의 행동, 조직구조, 재무적·기술적·물질적 자원, 리더십 유형
W.B. Weather 등	노조, 정보시스템, 조직문화, 갈등
R.W. Mondy 등	사명, 정책과 방침, 기업문화

(출처: 재편집, 이한검(1994). 경영학의 에센스, 형설출판사, p. 358)

그러므로 시스템으로 기업경영이 전략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이 경영전략·조직구조와 연계하여 환경에 유기적으로 적응하는 경쟁력의 핵심적인 자원이 되는 것이다. 인적자원관리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

### 3. 인적자원의 수요와 전망

특정한 미래시점의 환경변화와 기업의 경영전략의 변화 등을 토대로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계획전략이라고 하며, 적응전략은 실제적인 인적자원의 초과공급 혹은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특정한 시점에 이르러 필요한 인적자원을 충원하든지, 과잉공급의 인적자원을 감축하는 대응방법을 의미한다.

#### 1) 인적자원 계획을 위한 수요예측

##### 가. 양적 수요예측기법

양적 수요예측은 미래의 특정시점에서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양(quantity)에 관한 예측이다. 관광기업은 기업 내·외부의 환경요인을 고려하여 적정생산량을 계획하는데 생산량의 목표에 따라 인적자원수요가 영향을 받는다. 수요예측기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통계적 기법 : 관광기업의 과거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특정한 미래시점에서의 인적자원의 양적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생산성 비율분석(과거 관광기업의 생산성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과거 생산성과 인적자원수요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미래의 인적자원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추세분석(시간의 흐름과 과거 인적자원수요의 변화를 기준으로 인적자원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회귀분석(인적자원수요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원인이나 사건들을 찾아내고 이들을 통해 인적자원수요를 예측하는 방법)등이 있다.

- 노동과학적 기법 : 시간·동작연구(time & motion study)를 통해 표준작업량 및 표준 작업시간을 산정함으로써 과학적으로 필요한 인적자원의 양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즉, 필요한 연간 총작업시간을 과학적으로 산정된 1인당 작업시간으로 나누어 인적자원수요를 예측한다.

- 델파이법 : 인적자원 수요예측에 전문적인 식견을 지닌 전문가집단(12-16명정도)의 반복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인적자원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 허용인건비법 : '인적자원의 최대 허용'의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수요예측기법. 즉, 기업의 지불가능한 인건비를 전제로 현실적으로 보유가능한 인적자원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

#### 나. 질적 수요예측기법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서 요구되는 인적자원의 능력·태도 등 인적자원의 질적 자격요건에 관한 예측으로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실시된다. 질적 수요예측기법은 다음과 같다.

미래시점에서 요구되는 직무성과
필요한 직무내용
직무수행자의 자격요건

- 자격요건분석법 : 기업경영환경이 비교적 안정적인 경우에 많이 사용되며,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직무의 내용이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용

- 시나리오기법 : 경영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환경변화는 물론, 이에 따른 직무의 변화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경우 사용

### 2) 인적자원 계획을 위한 공급예측

#### 가. 양적 공급예측기법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서 관광기업이 보유하게 될 인적자원의 양(quantity)에 대한 예측이며, 예측수준에 따라 직군별·직종별·직급별·부문별 예측이 있을 수 있다. 예측기법으



로는 다음과 같다.

- 빈도분석 : 인적자원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의 발생빈도를 통해 미래의 특정한 시점에서 인적자원 보유량을 예측하는 방법

- 추세분석 : 시간의 흐름과 과거 인적자원공급의 변화를 기준으로 인적자원공급을 예측하는 방법

- Markov 분석 : 전이행렬에 기초하여 현재 시점으로부터 미래의 특정한 시점까지 전환배치·퇴직 등 인적자원의 유입·유출을 확률적으로 예측함으로써 인적자원공급을 예측하는 방법

#### 나. 질적 공급예측기법

관광기업이 택하게 될 미래의 경쟁전략이나 기술의 종류와 다양성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어렵지만 대표적인 기법은 추세분석이다.

### Ⅲ. 해양관광의 동향

#### 1. 관광시장 동향분석

##### 1) 세계 관광시장 동향

2005년 세계관광시장은 여러 악재들(영국의 폭탄테러, 쓰나미, 조류독감, 유가급등, 불안정한 세계경제)에도 불구하고 2004년에 시작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UNWTO(2006)에 의하면 2005년 국제관광객수는 2004년의 7억6천600만명에서 8억 800만명으로 증가하여 사상 최초로 8억명을 돌파하였다. 이는 단지 5.5%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004년에 달성된 기록적인 성장세(+10%)가 이제는 안정권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륙별 동향을 살펴보면 아프리카는 전년대비 10%의 성장률로 성장을 주도하였는데, 성장세는 사하라 사막 이남지역이 이북지역보다 높은 12.6%로 성장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은 7.4%성장률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타이완이 속한 북동아시아는 10.2%의 두드러진 성장률을 보였다.

<표 3 지역별 세계관광객 수(2000-2005) >

	관광객수(백만명)						성장률(%)		구성비(%)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05/04	04/03	2005	2000
전 세계	808	766	697	709	688	689	5.5	10.0	100	100
아시아·태평양	156.2	145.4	114.2	126.1	116.6	111.4	7.4	27.3	19.3	16.2
유럽	443.9	425.6	408.6	407.4	395.8	396.2	4.3	4.2	54.9	57.5
미국	133.1	125.8	113.1	116.7	122.2	128.2	5.8	11.2	16.5	18.6
아프리카	36.7	33.3	30.7	29.5	28.9	28.2	10.1	8.4	4.5	4.1
중동	38.4	35.9	30.0	29.2	25.0	25.2	6.9	19.8	4.8	3.7

자료 : WTO World Tourism Barometer(2006. 1)

지역별 관광수입을 볼 때, 전세계 관광수입은 2003년 5천240억에서 2004년 6천230억 달러로 18.8% 증가하였다. 특히, 전세계 관광수입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유럽시장의 관광수입이 전년대비 1.5%로 감소한 반면,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경우, 2.9% 성장을 나타내었다.

<표 4 지역별 세계 관광수입(2003-2004) >

	관광수입(10억달러)		성장률(%)		구성비(%)	
	2004*	2003	04/03	03/02	2004*	2003
전 세계	623	524	9.1	-3.1	100	100
아시아·태평양	125	95	24.7	-9.9	20.1	18.0
유럽	327	283	2.6	-2.6	52.5	54.0
미국	131	114	11.1	-1.5	21.1	21.8
아프리카	18	16	5.3	6.4	2.9	3.0
중동	21	17	21.9	13.8	3.4	3.2

자료 : UNWTO Tourism Highlight. 2005 Edition

\* 2004년은 잠정치. 2005년도 미집계

세계관광시장의 10대 주요국가의 경우, 대부분이 유럽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북미지역의 미국과 멕시코, 아시아지역의 중국과 홍콩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홍콩의 경우, 전년대비 26.7%와 40.4%로 비약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

해양관광의 관점에서 볼 때, 10위 이내 모든 국가가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는 해양을 가지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5 주요 국가 외래관광객 현황(2004\*)>

순위	국가명	방문객 수(백만명)	증가율(%)	점유율(%)
1	프랑스	75.1	0.1	9.8
2	스페인	53.6	3.4	7.0
3	미국	46.1	11.8	6.0
4	중국	41.8	26.7	5.5
5	이탈리아	37.1	-6.4	4.9
6	영국	27.8	12.3	3.6
7	홍콩	21.8	40.4	2.9
8	독일	20.6	10.5	2.7
9	러시아	20.1	9.5	2.6
10	인도네시아	19.4	1.5	2.5

자료 : UNWTO Tourism Highlight, 2005 Edition \*감정치

## 2) 우리나라의 관광 동향분석

2005년 방한 외국인 관광객수는 총 602만 명으로 외래관광객 6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이는 전년대비 3.5%가 증가한 사상 최대치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류 등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과 관광 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중국, 홍콩, 대만 등 중화권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것이 전체 외래관광시장 확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해외여행은 2005년 한해 동안 전년대비 14.2%가 증가하여 1천 만명으로 넘어섰으며, 이에 따른 해외여행 지출도 크게 증가하여 관광수지 적자는 63억불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도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관광환경과 관광육구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국제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그리고 2005년 본격적인 남북관광시대의 서막이 열리므로 인해 금강산 관광(1998년11월 시작되어 2005년 6월, 100만명 돌파) 뿐만 아니라 개성관광, 평양관광, 백두산 관광도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국내 관광시점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무엇보다 남북관광 교류와 활성화는 사회·문화적인 인적교류를 확대시켜 상호간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친밀한 정서적 교감을 가져올 대안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하여 전체적으로 국내 내수시장에 활력을 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 3) 관광개발계획

2007년-2011년 제4차 시·도별 권역계획 중 해양관광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지자체인 부산, 인천 전남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비전 및 목표		수요 및 사업비 (2011년/천 명)	권역설정	주요사업
	비전	목표			
부산	• 동북아 해양 관광 중심 도시 부산	• 강·바다 복합적 체험 해양 관광도시 • (신)산업과 관광이 결합된 관광도시 • 삶의 질이 향상되는 문화 관광도시 • 첨단 관광 인프라가 완비된 도시	•합계: 42,602(+8%) - 국민국내:35,716 - 외국인: 6,886 •1조6,083억 - 국비 1,498억 - 지방비 1,708억 - 민자 1조2,877억	•4개 권역 - 동부산권 - 중부산권 - 서부산권 - 해안벨트권	•5대양 6대주 생태 공원(사하구 하단동 121,300㎡, 180억원)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기장군 기장읍, 3,638,310㎡, 8,812억원) 등
인천	• 세계인이 교류하는 한국관광 중심 도시	• 국제관광도시 - 역사문화관광도시 - 해양생태관광도시 - 시민관광중심도시	•합계: 11,610 - 국민국내:10,460 - 외국인: 1,150 •1,조5,041억 - 국비 418억 - 지방비 2,478억 - 민자 1조2,145억	•6개 권역 - 구도심 - 강화 - 송도 - 영종/용유/무의 - 청라 - 용진도서·해양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중구 용유·무의도 일원, 7,030,000㎡, 1조 8백억) •월미관광특구진흥(중구신포·연안·신흥 일원,3,000,898㎡, 2,784억) 등
전남	• 21세기 동북아 해양 문화 생태 관광의 중심	• 바다, 섬, 해안이 함께하는 해양 관광지 • 전통 역사문화와 음식이 있는 문화관광지 • 남도의 자연을 체험하는 관광지	•합계: 97,866 - 국민국내: 97,174 - 외국인: 692 •4조 7,340억 - 국비 5,961억 - 지방비 5,374억 - 민자 3조 6,005억	•4개 관광권 - 광주근교권 - 동부권 - 서부권 - 중남부권	•다이아몬드 제도 조성(신안군 자은면 일원31.33km,8,564억) •중도 갯벌 휴양타운(신안군 증도면, 1,077km, 442억) 등

## 2. 해양관광의 동향

BBC방송자료에 의하면, 20세기 관광객의 가장 큰 목적지는 바다였으며, 1999년 세계 관광객수 5억명 가운데 80%가 바다를 찾았다고 한다. 21세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해양관광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소득 3만달러가 예상되는 향후 2010년 이후에는 현재 해양관광상품의 주력이 되고 있는 해수욕장 중심의 해양휴양형 뿐만 아니라 최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해양스포츠형이나 해양크루즈형, 해양연관형 등의 활동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및 미래에도 해양휴양형의 수요는 지속될 것이지만 해양을 이용하는 행태패턴은 공간성과 시간성에 있어서 다양성을 나타낼 것이다.

장소의 경우, 백사장 중심의 해변에서 연안역 전체를 활용하는 다양한 활동성을 나타낼

것이며, 계절로 대표되는 시간성의 경우에도 여름철 일계절형에서 벗어나 연중 사계절 해양관광 이용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재의 하계절 중심의 휴가패턴에서 소득증대와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휴가시간의 증가로 인한 이용패턴의 다양화가 이러한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준다.

해양관광의 유형별 참여현황을 볼 때 선진국의 경우 요트타기, 레저잠수, 윈드서핑 등 해양스포츠형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나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해수욕중심의 해양휴양형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양관광에 관련되는 주요 시설수준도 이웃 일본이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미흡한 점이 많아 향후 시설 도입·개발·이용의 여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표 6 해양관광 유형별 참여 현황>

분류	종목	국내 현황	비고
해양휴양형	해수욕	연 참여인원 6,500만명	350여 개 해수욕장
	갯벌체험	해양레포츠 참가자 27%참여	어촌관광과 연계
	바다낚시	동호인 500만명	전 연안
스포츠 형	레저잠수	C카드 소지자 30만명	서해에 다소부적합
	윈드서핑	3만명	호수, 내만 등 다수
	세일링, 보팅, 기타	요트(선수) 1,500여명	7-8개 경기장
유람형	국제크루즈	부산, 평택항 정기기항 실적있음	star cruise선사
	국내연안선 관광	연안여객선 탑승자: 약1000만명('03)	도서지역 연계
	해저관광선	제주 서귀포, 성산포, 사계리, 속초 운항중	

<표 7 한일간 해양관광 관련시설 보유 및 시설능력>

시설/활동명	한국	일본	비고
해중공원	-	지정·운영 중	정부 지정 구상
해중전망탑	-	7개소	정부 건립 구상
해상낚시터	수 개소	전국 연안 시 주변	-
수족관	3개소	70여 개소	-
마리나	요트경기장 7-8개소	600여 개소	수영만 요트경기장 등 시설 3개소
유선 (요트, 모터보트등)	3,200여척	32만 척	-

해저잠수정 건조 및 운영	4개소 운항 및 시험건조	건조 및 운항	서귀포 등에서 운항(핀란드계)
크루즈선	건조 구상 중	건조 능력 보유	-
워터파크	3개소	다수	-
해상호텔 등 해상플로팅 레저시설	구상 중(거제, 제주 등)	각지에 보유(식당, 전시, 수족관, 호텔)	선박, 구조물 등 이용
경정장	한강 미사리 운영 중	다수 보유	각 지자체 구상 중

## IV. 해양관광 인적자원의 전망

### 1. 관광인적자원

관광산업을 국가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관광분야는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에는 유망한 미래 산업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관광에 대한 학문적 관심도도 높아져 가고 있다.

관광산업의 발전에 따라 관광분야 전문교육과정이 매우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는데 이러한 관광교육기관은 관광인력의 저변확대는 물론 전문적인 관광인력의 공급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관광관련 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정규 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다.

#### 1) 정규 관광교육기관

국내 최초로 1964년에 경기대학교에서 4년제 정규 학사과정으로 관광 관련 학과가 설치된 이래 현재 176개 대학(교)에서 정규 학위과정의 관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년제 정규 과정의 대학이 주로 관광전반에 걸친 학문적 이론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에 2년제 전문대학은 관광에 관한 실무·실기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하여 관광산업의 전문종사원을 양성하고 있다.

최근 변화사항으로 다른 학문분야와 관광이 서로 결합되어 관광의 학문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화·개방화시대에 따라 관광이 외국어·경영·문화·정책개발 등 다른 학문분야와 결합되어 새로운 학문영역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8 관광교육기관 현황>

		2006년 6월 현재			
구분	학교수	입학정원	재학생수	졸업생수	
대	40개교	3,948명	11,118명	1,291명	
전	80개교	8,575명	15,071명	6,730명	
방	1개교	2,000명	2,704명	-	
상	7개교	190명	1,293명	328명	
산	1개교	-	9명	7명	
업	1개교	100명	152명	-	
간					
원					
합	130개교	14,813명	30,347명	8,356명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학과분류정책에 따라 전문대학은 '관광계열 학과'로, 그 외 대학은 '관광학'계열 학과로 구분 기준으로 한

국내관광계열학과의 현황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표 9 국내 관광계열 학과 현황>

대학	관광	호텔	항공·스튜디어스	컨벤션·이벤트	합계
4년제 대학교	47	3	6	3	59
2년제 대학	65	24	29	8	126
합계	112	27	35	11	185

국내 관광계열 학과나 전공은 전체 185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특히 4년제의 경우 59개, 2년제가 126개의 전공이 개설되어 2년제가 2배 정도 많이 개설되어, 학교수의 현황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관광전공이 전체 전공의 60.5%를 차지하고 있어, 관광전공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항공·스튜디어스 전공이 18.9%를 차지하였다. 특히, 4년제 대학교의 경우, 관광전공이 전체의 79.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전공의 경우, 전공이나 학과 명칭에 국제관광, 문화관광, 관광정보, 관광레저 등의 용어가 병행하고 있는 학교도 다수 있었으며, 특히, 2년제 대학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4년제 대학교에는 47학과가 개설되어 있었으며, 2년제 대학의 경우 65개가 개설되어 있었다.

반면에 호텔전공의 경우, 4년제 3개, 2년제 24개가 있었으며, 항공·스튜디어스 전공의 경우, 4년제 6개, 2년제 29개가 개설되어 있었다. 컨벤션·이벤트의 경우도 4년제 3개, 2년제 8개가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양관광의 명칭이 포함된 학과나 전공은 전국의 130개 학교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해양관광분야의 인적자원 양성분야와 양성수준은 다음과 같다. 다음의 표에서 제시한 양성분야는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표 10 해양관광 인적자원 양성 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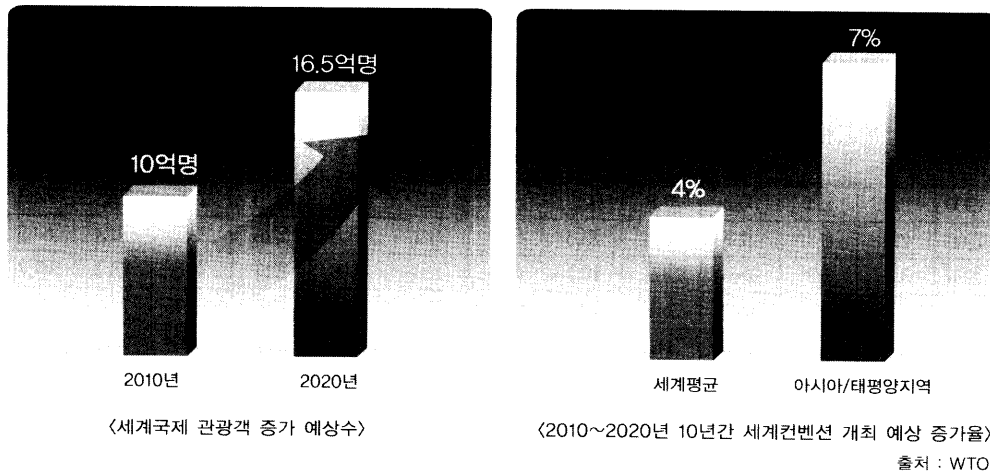
양성분야	양성수준
해양관광자원관리 및 운영	-해양관광자원해설사 -해양관광상품설계사 -해양관광마케터
해양관광 및 해양관광 IT	-해양관광서비스사 -해양관광 IT전문기사 -어촌관광 IT전문기사
해양레저스포츠	-해양레포츠 G.O -해양레저스포츠 지도사 -해양레저 및 스포츠 등 전문인력
전시·컨벤션	-컨벤션기획사 -전시기획사 -박람회기획사 등 전문인력
호텔경영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호텔조리사 등 전문인력
통번역, 문화기획	-관광통역사 -TC -축제이벤트 및 문화기획 전문가 등 전문인력

## 2. 부산의 해양관광 인적자원 수요와 전망

### 1) 부산의 해양관광 현황과 인적자원 수요

세계 주요선진국들은 관광·컨벤션 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또한 관광·컨벤션 산업은 고부가가치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절대적으로 크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시는 관광·컨벤션 산업을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21세기 부산을 이끌 4대 핵심 전략산업(2004년)으로 선정, 육성하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스탠다드 기준, 부산의 해양관광·컨벤션 산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해양관광·컨벤션산업을 견인할 핵심 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부산은 천혜의 풍부한 해양문화·관광 자원 보유하고 있으며, 특급호텔 및 대형 컨벤션 시설 확보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주요도시와의 지정학적 근접성(항공기로 2시간권 약 7억 명)으로 타 지역 해양관광목적지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2006년도 국제회의도시 선정에 계기로 컨벤션뷰로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APEC의 성공적인 유치, 세계 3위의 항만 등으로 인한 부산의 도시브랜드 가치가 상승하고 있으며, 전국대비 지역내 대학의 관광·컨벤션 전문교과 개설비중 최고(수도권 제외)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경쟁 및 비교 우위 요소에도 불구하고 해양관광분야의 국제수준의 전문인적자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체계화된 혁신 인적자원 양성 프로그램의 부재와 현장 실무형 인적자원 양성이 미흡하고, 고급전문 인적자원 인력의 부재, 국제화 교육과의 연계 미흡, 지역내 산업체의 영세성·낙후성으로 인한 우수인재의 역외유출이라는 약점을 나타내고 있다.

## 2) 해양관광사업분야 인적자원 양성의 필요성

부산의 지역적 필요성으로 부산의 산업 구조는 3차산업 82.7%, 2차산업 16.0%, 1차산업 1.4%를 차지(2004년 기준)하고 있다. 부산지역 산업구조의 특징을 보면 2차 산업 비중의 격감과 산업구조 고도화 미흡 등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의 낮은 경쟁력에 비해 서비스산업을 포함하는 3차산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여건이다.

<표 11 부산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 (단위:%)

구분	GDP 대비 산업별 비중						일자리 수요의 산업별 비중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부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전국
1990	2.5	8.4	30.3	31.8	67.2	59.8	2.2	17.9	38.6	27.6	59.3	54.5
1995	2.6	6.4	21.8	30.6	75.6	63.0	3.2	11.8	26.6	23.7	70.3	64.5
1997	3.4	5.3	18.5	31.2	78.1	63.5	2.8	10.8	23.7	21.5	73.4	67.7
1998	2.8	5.2	18.1	32.8	79.1	62.0	2.4	12.0	23.5	19.7	74.1	68.2
1999	2.6	5.3	18.5	33.8	78.9	60.9	2.5	11.3	24.2	19.9	73.3	68.7
2000	2.2	4.5	18.3	35.0	79.6	60.5	2.4	10.6	23.5	20.4	74.1	69.0
2001	2.1	4.4	18.2	33.8	79.7	61.8	1.9	10.0	22.6	19.9	75.4	70.2
2002	1.7	4.0	18.4	33.2	79.9	62.8	1.7	9.3	21.4	19.2	76.9	71.5
2003	1.7	5.5	15.5	28.2	82.9	66.3	1.7	8.1	20.0	19.1	77.9	72.1
2004	1.4	5.4	16.0	30.1	82.7	69.0	1.6	7.9	18.9	18.6	79.0	72.8

<자료 : 통계청, KOSIS>

해양관광·컨벤션산업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21세기 부산을 이끌 부산의 성장 유망산업(1999년), 4대 핵심 전략산업(2004)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벅스코와 누리마루APEC하우스 등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회의시설과 숙박시설, 관광 및 교통인프라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 2005년 10월 국제회의도시 선정을 계기로 부산시의 관광·컨벤션 및 관광산업 발전전략 선정

- ✓ 컨벤션 인프라 확충 및 개선<sup>10)</sup>
- ✓ 신규 컨벤션 시장 개척과 홍보강화를 통한 지속적 동력성장 확보
- ✓ 유비쿼터스 컨벤션 구축을 통한 서비스 수준의 획기적 향상
- ✓ 컨벤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연관산업 동반발전 등 4대 목표를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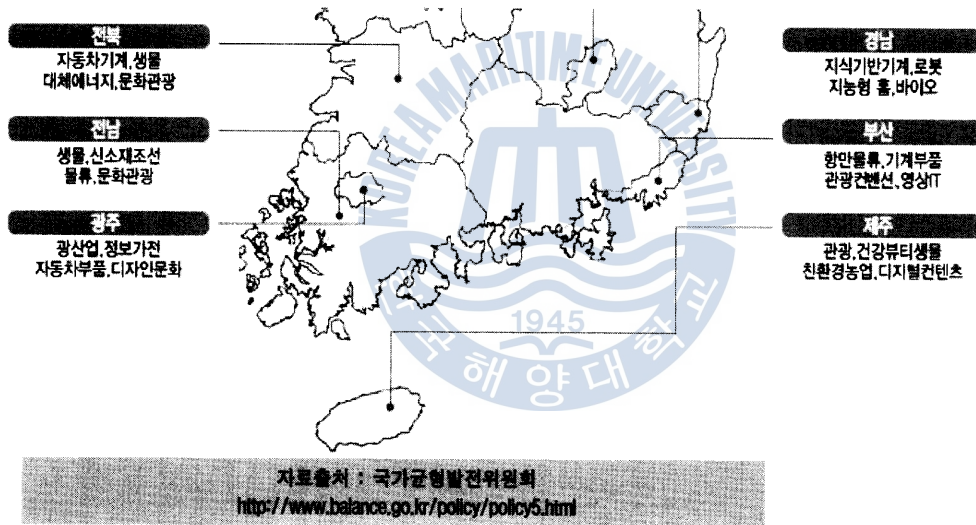
부산시 해양관광·컨벤션 서비스 제공수준의 향상을 위한 학/관/산 협력을 통한 보다

10) 부산시는 현재 50%대인 벅스코의 가동률이 2007년에는 60%를 넘어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2014년까지 2천279억원을 들여 4천500평 규모의 전문전시장과 2천석 크기의 대형 회의장 등을 갖춘 제2벅스코를 신축하고 동백섬 2차 정상회의장인 누리마루APEC 하우스를 고급 회의시설로 활용하는 등 컨벤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다. 또 벅스코 주변을 정보기술(IT)과 영상, 국제 비즈니스, 관광·엔터테인먼트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단지로 확충하고 특급호텔과 중·저가 국제체인호텔의 건립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컨벤션뷰로 활성화를 통해 국제회의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신규 시장을 개발하는 한편 지역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업체 지원, 컨벤션 참가자를 위한 편의제공 서비스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함.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국제적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특히 국제회의와 연계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표 12 부산시 지역전략산업 >

10대 전략산업	지역혁신 전략산업	5대 전략산업	핵심 4대 전략산업
항만물류산업	항만물류산업	항만물류산업	항만물류
관광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부품소재산업	기계부품소재
소프트웨어산업	관광·컨벤션산업	관광·컨벤션산업	관광·컨벤션
영상산업	영상·IT산업	영상·IT산업	영상·IT
금융산업	금융산업	선물금융산업	



### 3) 해양관광컨벤션 사업분야 인적자원 수급 상황과 전망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추정된 부산의 인구나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해양수산부, 2003)에서 언급한 해양관광 참여인구의 비율을 적용하여 부산의 해양관광 참여인구를 예측하였다. 해양관광 참여인구를 살펴보면 2005년 800만명에서 2015년에는 외래관광객 350만명을 포함하여 1,000만 여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분야 인력수급 상황으로 부산지역 해양관광·컨벤션 분야 인력수요는 2005년 11만 5천여 명에서 연평균 4.5%씩 성장하여 2009년 14만 7천여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3 부산광역시 해양관광·컨벤션 인력수요 전망> (단위 : 명)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여 행 업	10,853	11,168	11,649	12,173	12,587
숙 박 업	10,877	11,192	11,696	12,222	12,650
외 식 업	85,883	90,092	94,506	99,136	103,993
컨 벤 션	2,570	2,850	2,895	3,306	3,590
관 광 IT	4,429	4,646	4,874	5,113	5,364
시 설 업	1,055	1,089	1,142	1,198	1,244
기 타	6,713	6,903	7,212	7,534	7,798
계	115,656	120,729	126,500	132,569	147,226

<자료 : 한국관광연구원, 관광산업 인력전문화 방안, 2001 및 컨벤션연구원, 컨벤션 전문인력 수급현황, 2002 참조>

부산지역의 해양관광·컨벤션 분야의 신규인력의 수요를 전망하면 2005년 4,474명에서 2009년에는 6,97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국의 2005년도 관광관련 신규 취업인력 32,477명의 13.8%이다. APEC의 성공적 개최, 남해안 관광벨트개발계획의 일환인 동부산관광단지개발 및 북항재개발, 부산롯데월드, 제2 BEXCO, 부산신항만 개장과 배후지의 관광단지, 실내스키장 등 개발을 감안하면 추가 수요가 예상된다. (재)부산인적자원개발원의 관광컨벤션 신규인력수요전망에 의하면 2008년에는 9,22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2004년 대비 163%(사업체), 234%(종사자) 증가(Cubic 모델에 의한 예측)한 것이다.

<표 14 (재)부산인적자원개발원의 관광·컨벤션 신규인력수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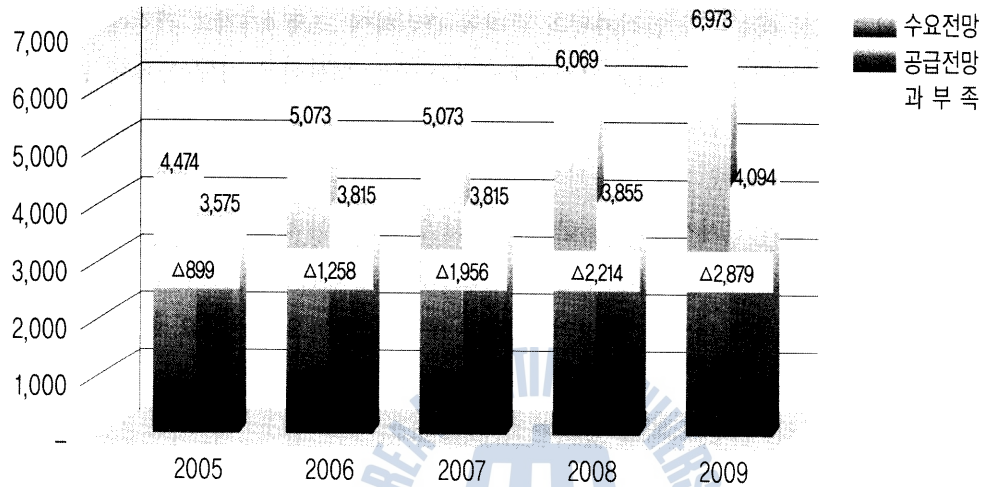
연도	Linear		Quadratic		Cubic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2001	780	2,314	780	2,314	780	2,314
2002	805	2,762	805	2,762	805	2,762
2003	822	2,628	822	2,783	822	3,255
2004	858	2,735	939	2,971	965	3,945
2005	912	2,842	1,067	3,174	1,150	4,855
2006	966	2,949	1,209	3,390	1,375	6,018
2007	1,021	3,055	1,362	3,619	1,643	7,465
2008	1,075	3,162	1,527	3,863	1,957	9,228

<자료 : (재)부산인적자원개발원, 지역전략산업 기초조사연구, 2005>

부산지역 해양관광·컨벤션 분야의 공급인력 부족은 2005년 899명에서 2009년에는



2,879명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은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인력이 배출. 그러나 전문적 교육프로그램과 현장교육의 연계가 부족하며, 현장실무능력과 전문성이 미약하다.



부산광역시 해양관광·컨벤션 신규인력수급 전망 (단위 : 명)

향후 취업 전망으로 APEC 이후 컨벤션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관련업체의 활성화와 전문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질의 국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역관광자원에 대한 깊은 지식(지역문화/역사, 외국어 능력, 관광관련 자격증 구비)을 갖춘 전문가양성이 시급하다. 특히 부산⇔중국 및 일본의 주요 도시간 동북아 관광네트워크 구축과 전문가양성이 필요하다. 특히, BITF(부산관광전)의 세계 유명관광전 발전을 위한 외국 유명 관광산업 및 박람회 벤치마킹 능력자 배출이 시급하다. 부산의 국제회의 개최비중의 증가(2003년 전국대비 6.4%, 2010년 전국대비 10%로 성장)와 함께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급증(2004년 160만 ⇒ 2010년 300만), 내국인의 해외여행 급증(1998년 239,495명 ⇒ 2001년 907,592명)에 따른 로칼 가이드, Through 가이드를 포함하는 통번역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국내·외 관광객을 겨냥한 부산 특유의 문화행사 및 축제 아이템 개발과 홍보 인력 양성 시급(OECD의 부산평가 2004)하다.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이상에서 검토한 해양관광 인적자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크게 4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Cohen은 <Value leadership>에서 호황이든 불황이든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통하는 글로벌 경영원칙 7가지를 제시한다: 인간관계의 존중, 팀워크의 활성화, 성장 동력의 내적발견, 약속의 이행, 자기만족과의 싸움, 다양한 역량의 배양, 기업의 사회적 책임. 특히, 해양관광분야의 인적자원은 타 분야와 달리 인지도에서 뿐만 아니라 전문성에 있어서 타 산업과의 비교에서 차별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양관광분야의 성장동력의 내적발견과 다양한 역량의 배양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지역대학의 주체적 노력 강화의 관점이다.

#### 1) 산학협력 강화 및 산학일체시스템 구축 지향

- 지역밀착형 산학협력 교육·연구의 활성화: 산학협력은 우선 대학교육과정 편성에 지역산업계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틀을 구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필요가 있다. 대학은 지역의 산업체와의 공식적 협정 체결을 통해 '주문식 교육'과 '주문식 연구'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 산업체 대상으로 소속 대학 졸업생 만족도 조사의 상시화: 소속 대학 졸업생들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졸업생 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그 결과를 교육과정 개편 및 취업지도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조사를 통해 졸업생들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기업들이 만족하는지, 즉 교육이 적절히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2) 지역대학의 취업 기능 확충 및 체계화

-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의 취업관련 통계 구축: 이 조사를 토대로 전공·계열별 취업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변화를 유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 대학 취업담당기관의 기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대학은 이제 고급의 인적자원양성기

관에서 인적자원양성뿐만 아니라 진로지도와 취업알선 기능까지를 포괄하는 종합인적자원센터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둘째, 기업과 정부의 지역대학 지원 확대이다.

### 1) 기업의 지역대학 참여 및 지원 확대

지역대학에 대한 지역기업의 참여 및 지원이 크게 확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지역대학 발전에 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가 주요 국정정책목표로 설정되면서 지역대학의 역할 증대,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 강화가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지역의 관광 관련 대학과 부산시가 지역 전반의 지원대책에 있어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양관광 인적자원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수급정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3) 국내 공공기관·대기업 및 국제기관의 지역내 설립 및 이전 추진

- 국내 공공기관의 지역내 설립 및 이전 : 부산 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지역대학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고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행정기관·공기업·정부산하기관 등의 공공기관을 지역에 신규 설립하고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산의 경우 동북아 해양수도와 해양관광목적지 실현을 위해 해양비즈니스와 해양관광 관련 연구기관들의 설립과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해양관광을 활성화시키며,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 정착을 반영하여 영상 관련 공공기관들의 부산 이전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대기업의 지역내 이전 : 지역대학이 산학협력 시장을 확대하고 교육과 연구, 그리고 취업면에서의 우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포함한 민간기업의 지역내 이전 역시 요구된다. 민간기업의 지역내 이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대책 확충을 요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실효성 있는 부산지역 자체의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특화산업 지원대책의 확충을 통해 부산지역 전략산업인 해양관광·컨벤션 관련 대기업 등 민간기업의 지역 이전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sup>11)</sup>

- 해양관광 기구 및 기업·연구소의 지역내 이전 : 해양관광 기구, 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는 지역인적자원의 고용창출뿐만 아니라 국내외 국 우수인력의 지역내 유입을 통한 학습효과(learning effect)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의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선정되어야 한다. 특히 해양·수산·영상 등 지정학적으로 부산이 강점을 가지는 분야와 이미 성공을 입증받은 분야의 기구, 기업 및 연구소 유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차원을 초월하는 범정부적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인적자원 인프라의 구축 및 강화이다

지역의 교육기관인 대학 중심의 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인적자원개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대표들로 구성되는 파트너십 기구를 만들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해양관광특화 지역인적자원관리기구를 중심으로 인적자원의 인프라 구축과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대표들의 참여 및 협의를 통한 해양관광특화 지역인적자원의 지역밀착적 분권화 실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넷째, 산학연 연계 해양관광전문 인적자원 양성교육 프로그램이다.

최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등 관광환경이 지역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지역활성화, 지역발전의 주요 전략으로서 관광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지역 관광을 선도해 나갈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이 미비하여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및 지역사업자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및 지역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인적자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공무원, 민간업체 및 관련단체 상호간 커뮤니티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관광특화된 전문인적자원 양성기관의 구축은 해양관광인프라 구축의 선결과제가 된다.

---

11) 부산광역시에서는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신발, 섬유패션, 수산가공, 향만물류, 금융, 관광, 영상, S/W 등을 10대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이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다.



## 2. 제언

### 1) 해양관광 인적자원 확산 방안

지역인적자원개발은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노력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의 다양한 삶의 장에서 학습을 통하여 자신과 지역사회 구성원들 간에 풍부한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을 형성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과 평생고용 가능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경쟁력 제고, 사회적 응집력 제고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과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지역인적자원 개발 추진이 지역사회 교육기관, 시·도 지방노동청, 지역사회 교육기관, 지역평생교육기관 등의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해양관광 발전을 위한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을 위한 확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정부의 역할 강화이다.

- RHRD와 중앙부처의 정책간 연계·협력 : 해양관광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을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주요 정책과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관련 부처간 정책의 중복 및 혼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의 중복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과 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발전적인 해양관광 정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부처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정보 교류 및 정책 협의를 위한 통로를 제도화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중앙 관련 부처 국장급들로 구성된 해양관광지역 인적자원개발 지원단을 가동시키고 여기에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 RHRD관련 정책의 연계·통합 추진 : 중앙정부에서는 해양관광의 지역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하나로 묶는 큰 정책 프레임 설정하고 이 프레임에 맞추어 행·재정지원 방안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해양관광 특화 지역 인적자원개발, 지방대학 육성,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의 관련 사업간 연계·통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지방정부에 해양관광특화 지역 인적자원개발 기획·추진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중앙정부 예산 지원의 확대 및 안정성 확보 필요 : 해양관광특화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예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의 예산 지원 규모를 알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 인적자원개발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유도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해양관광특화 지역 인적자원개발 지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실행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셋째, 지방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 해양관광특화 지역인적자원개발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협의체의 구성·운영 근거를 제시하고, 해양관광특화 지역인적자원개발 실행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 둘, 해양관광특화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상설조직화를 통해,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 추진의 구심 역할을 수행하고, 해양관광특화 지역 인적자원개발이 일관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상설 조직화되어 지역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전담할 수 있어야 한다. 상설 위원회는 기관장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 RHRD 연구·평가·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센터 등으로 구성된다. 셋, 지방 관련 주체간 협력관계의 지속 유지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에서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형성된 관련 주체간 공감대 및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 인적자원개발은 어느 특정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지역의 해양관광특화 인적자원개발 협의체는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이슈를 가장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해양관광특화 RHRD관련 조직신설 및 인원배치가 요구된다. 해양관광특화 RHRD관련 사업추진 및 관련업무 처리와 관련기관간 네트워킹 창구 역할 수행이 사업추진 승패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 2) 정책 제언

첫째, 해양관광특화 지역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에 근거한 포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해양관광특화 지역 인적자원개발, 지방대학 육성,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을 위한 재원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하여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향후

해양관광특화 지역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지역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본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평가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상기 방식에 의한 해양관광특화 지역 인적자원개발 기획 및 예산 지원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가. 해양관광특화 지역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나. 해양관광특화 지역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에서의 점검·협의 및 승인

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또는 인적자원개발회의) 상정 및 승인

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부터의 예산 지원

마. 해양관광특화 지역 단위에서의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집행

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또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평가

둘째, 해양관광특화 RHRD, RIS, 지방대학육성 등의 통합 정책 수립 필요하다.

해양관광특화 지역 인적자원개발, 지방대학 육성, 지역혁신체제 구축 등의 관련 사업간 연계·통합이 필요하다. 지방의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협의체에서 3개 사업의 정책을 총괄 기획·조정하여 사업간 연계·통합을 추진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한다.

셋째, 지역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상설조직화가 요구된다.

해양관광특화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 추진의 구심 역할을 수행하되, 지역 인적자원개발이 일관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기획·추진되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상설 조직화되어 지역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전담할 수 있어야 한다. 상설 위원회는 기관장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 RHRD 연구·평가·정보제공 등을 담당하는 센터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관광·컨벤션사업단, “국제전문 지식기반 해양관광·컨벤션 인력 양성사업”, 2006.
- 김복동 외1, “호텔·관광인적자원관리”, 백산출판사, 2005.
- 김성귀, “해양관광론”, 학현사, 2007.
- 동의대학교, “해양관광·컨벤션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2005.
- 류장수,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과 과제”, 2006.
- 문화관광부, “2006 관광연차보고서”, 2006.
- 부산광역시, “제4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2007.
- 부산광역시, “2006년 부산광역시 10대 전략산업육성 마스터플랜”, 2006.
-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21 기본계획”, 2002.
- 부산광역시교육청, “RHRD 시범지역 운영 자체 성과분석 보고서”, 2003.
- 부산발전연구원,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2006.
- 부산산업클러스터 산학관협의회·부산광역시, “부산10대전략산업 발전토론회”, 2005.
- 양위주 외1, “레저”, 대왕사, 2006.
- 이수광 외1, “서비스산업의 인적자원관리”, 대왕사, 2003.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기본계획”, 2000.